

선교회지 MAR 2010 '봄' 호 통권 3호

Universal Care

간증문

몽골 에르덴 호익 전도사

Interview

러시아 로스톱 신학교
김우섭 선교사

My Vision 홍성훈 목사
'Paradigm Shift of Mission'

Theme 이스라엘

2010.03.16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치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전문인 선교회입니다

발행인 / 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www.cyworld.com/universalcare
발행일 : 2010.03.16

표지설명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모습,

Contents

03 Prologue

- 들으라 이스라엘 !!/정진호

04 Universal Care 후원 몽골 신학생/

에르덴 호익 전도사

07 My Vision

Paradigm Shift of Mission/홍성훈 목사

Theme

09 '이스라엘'

1.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선교의 중요성
2. 이스라엘 선교와 러시아(구 소련)선교
3. "성령님께서는 이 카이로스 시대에 가장 큰 기도와 예배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20 Interview/러시아 김우섭선교사

31 선교지에서 온 편지

-몽골 황필남선교사
-남아공 배성호선교사

36 선교사 기도제목

Prologue

들으라 이스라엘 !!

정 진 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1:25~6)

2010년도 첫 Universal Care 선교회지를 준비하면서 주신 첫 마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실크로드를 따라 이슬람을 관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서야 하리라,”

주님은 저에게 오래 전에 주셨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불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몽골 땅을 사모하는 것도, 러시아의 영적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프리카의 최남단의 땅, 남아공에서 예수의 깃발을 드는 것도, 우즈베키스탄 땅의 현신자들의 이야기에 흥분하는 것도 모두 예루살렘을 향한 다르지 않은 마음이며,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시기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민족을 시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을 여시기 위해 한민족을 복음의 강한 화살촉으로 쓰실 것 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감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한민족의 하나님, 아니 열방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이니라”
(롬 11:11)

우리는 이 거룩한 운동에 닳도록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룩한 행진(Back to Jerusalem)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그 밭을 내딛습니다.

Universal Care
후원 몽골 신학생

몽골 “에르덴 호익” 전도사의 개인 간증문과 기도제목



Universal Care에서는 2010년도 1학기부터 몽골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로회 연합 신학교 신학생의 학비 및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후원하기를 결정하였고, 이에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에르덴 호익” 전도사님이 선정되시어 지면을 통하여 알리게 되었습니다. / 편집부

안녕하신지요? 제 이름은 에르덴 호익(41 세, 남자)이며, 울란바토르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릴적부터 도시의 변두리에서 성장했기에 고등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995년부터 빠징꼬와 비슷한 유럽의 장기놀이(Chess)를 하며 놀음에 빠져 10년동안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돈 놀음에서 빠져 나오려고 했으나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죄악은 음란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경(26살 때) 한 몽골인으로부터 예수의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1997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9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가서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공장이 IMF 경제 위기시에 망했고 저는 1999년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그 때 우리 가정은 많은 빚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3명의 한국인 선교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에 저는 호주로 돈을 벌기 위해 갔고, 5년동안 일하여 가정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깊이 모른채 세월을 헛되게 흘러 보냈습니다.

2006년 하나님의 은혜로 10년동안 복수 비자를 얻어 미국에 갔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황필남 목사님의 아내인 바이사(김말례) 선교사와 만나 예수에 관해 듣고 처음으로 구역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동안 직장과 와싱톤 몽골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다가 다시 몽골에 돌아왔으며, 황 선교사님과 함께 제 개인 자동차로 여름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후 1년동안 몽골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다시 미국 와싱톤에 갔었고 1년동안 일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참석했고, 성가대와 구역에서 봉사하며 선교사를 따라 심방하며 초기 미국 이민자들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몽골인들을 전도하며 섬겼습니다.

2008년 몽골로 돌아온 이래 세상일에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에 큰 흥미를 느끼며 오늘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장로교 연합 신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2학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몽골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응형 우승(영원한 진리) 교회에서 2개 구역 모임을 맡아 구역장으로 섬기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교회의 찬양부장으로, 쓰레기를 주어 팔아먹고 살아가는 걸인들 예배에서 1달에 한번씩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신학교 장학금을 보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국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개인 기도제목:

1. 아내 오동 토야(36세)가 예수를 깊이 믿을 수 있도록

간혹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깊은 신앙이 없는 아내 영혼 구원 받도록

2. 제가 하나님앞에 순종적이고,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3. 신학교에 남은 2년 반동안 성경을 잘배워 믿음직스런 일꾼되도록

황필남 선교사의 추천의 글



제가 에르덴 호익 형제를 몽골 신학교 장학생으로 추천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는 와싱톤에 왔을 때 직업을 구하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가 왔었고, 아내는 그를 전도하여 교회 예배에 참석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몽골인들과는 다른 급속한 속도로 신앙이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적이적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특히 에르덴 호익 형제는 아내에게 소개해준 한 한국인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그 상점 주인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카톨릭을 믿고 있던 50 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어느날 그 상점을 방문했을때, 그 주인을 말하기
“제가 이민해 미국에 와서 30 년동안 비즈니스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지만 에르덴
호익같이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가족이 전부 미국에 이민 온다면 제가
일해 왔던 이 편의점을 그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편의점은 미국 BBC 방송사안에 있는
상점입니다.

교회에서도, 몽골인 사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신실성을 인정받은 형제입니다. 몽골에
돌아와서도 온갖 희생적인 삶을 살며 선교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학교에 다닐만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점을 생각하며 기쁘게 Universal care 의 장학생으로 추천드립니다.

2010. 2. 9

몽골에서 황필남 선교사드림

몽골 신학생 후원계좌 : 국민은행 288 210288 079 예금주 : 최혜원

My Vision

Paradigm Shift of Mission



홍성훈 목사
오정성화교회 부목사
Universal Care 찬양인도자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나는 주저없이 선교라고 말한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세계 역사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항상 선교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선교에 주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에 선교하는 그 방법에 있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부흥의 불길을 경험한 것이 불과 100 여년 정도 되었다. 그 사이에 이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전국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의 축복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땅을 선교하는 곳으로 바꾸어 주셨고,

불과 몇십년 되지 않는 선교 역사 가운데, 세계 2 위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이끌어 주셨다. 지금 이땅의 교회는 세계 1 위의 선교사 파송국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파송하려고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하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는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작 선교사의 수를 늘리려는 모습 가운데,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돌보려는 노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수가 얼마가 되는지, 세계 몇 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인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번만 움직이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뒤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듯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모든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가정하여 보급품을 준비하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송하여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선교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떠한 프로젝트들 진행하든지, 영적 전투로 인해 지치고 부상당해 후송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해 전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한국에만 오면 후원하는 교회들이 그동안 보내준 사역비로 사역한 내용들과 결과들을 보고해 달라고 한다. 그 결과가 후원하는 교회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비가 끊긴다. 그래서 가급적 한국에 오기가 싫다."

물론 선교보고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외부 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관심을 갖는 선교가 아닌, 실질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일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기도하며 동역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나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아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포트 할 수 있는 선교 후원 사역들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그러한 교회가 되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은 언젠가는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러한 비전들을 우리 Universal Care 와 나누고, 프로그램보다는 그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함께 동역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me

‘이스라엘’

“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
“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

Theme 1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선교의 중요성

Theme 2

이스라엘 선교와 러시아(구 소련)선교

Theme 3

“성령님께서는 이 카이로스 시대에 가장 큰
기도와 예배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Theme 1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선교의 중요성

황필남 목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1. 이스라엘의 태동

이스라엘의 시작은 지금부터 약 3,800 년 이전인 BC 1800 년경 하나님께서 셈족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 장 1~3 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통해 전 세계를 축복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하나님과 여러가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용은 첫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둘째는 복을 주시는 일이며 셋째는 이 민족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 장 8 절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곧바로 축복하기보다는 먼저는 언약을 하시고, 다음에는 연단 작업을 통과한후 전 세계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중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불렀습니다. 이런 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부르심과 의무를 받은 나라로써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 이스라엘의 달힌 마음과 듣지 못하는 시대를 거침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여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구원과 역사의 무대에서 중대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신 29:4).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했다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사 6:10).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베임을 당하여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길때까지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사 6:12~13).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 장 14~15 절에서 확증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 장 8 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흔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확증을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오랫동안 영적 소경이 되게 하시고 무지한 상태로 방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 장 11 절을 통해 “저희(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3. 이스라엘의 연단과 불시험 같은 고난의 시대를 통과 해야함

구약성경을 통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야곱은 뱃담아람에서 20 년간,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 년동안 그런후에 이스라엘 200 만 백성들은 광야에서 40 년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죄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70 년동안 고통스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무서운 연단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AD 70 년경에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둘위에 남지 않는 처참한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 차 대전 당시에는 나찌 독일군에 의해 유대인들은 600 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가스실)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벼림을 당한 것처럼 보여 왔습니다.

4.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활을 위한 갈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가 열리리 위해 하나님의 결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세계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다시 서게 되고, 다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때가 될 것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자기들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렘 33:24),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불불을 것을 확실시 하고 계십니다(렘 33:25~26). 더욱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언한 로마서 11 장 11 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넘어지기까지 실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고 부흥의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무관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 전파의 시작이(행 1:8) 세계를 한바퀴 돌고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Back to

Jerusalem) 이스라엘의 회복될 것이라 갈망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살았던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초청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레미야나 다니엘처럼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선교회를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하여 러시아와 아프리카 중국과 미국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운동을 일으키는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돋고 후원하는 사역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갈망하는 믿음과 행동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써 그런 영적 갈망을 로마서 11 장 25 절에 기록했습니다.“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힘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말했던 비밀이라는 것은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안에 부분적인 소경과 같은 상태를 유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로마서 11 장 26 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큰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서 36 장 22~23 절에서 약속했습니다. 2005년에 유대인들중에 약 6,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2010년 현재에는 랍비(성경 선생)들까지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주님앞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는 성령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선교적 중요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지는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축복은 유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도시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 장 22 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으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축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러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고 민족들이 구원 받는 것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 장 47 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한 것을 보면 모든 민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의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오순절의 성령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므로 성령의 시대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행 1:4, 12, 2:2). 노아는 이렇게 셈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찬송을 받을 것을 수 천년 전에 내다 보았습니다(창 9:26~27). 그 결과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아 가나안땅인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창 12:1~2, 7~8).

셋째, 하나님에 의해 잠시 버림 받으나 다시 모으실 하나님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을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품안에 모으듯이 모으실려고 애를 쓰셨지만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 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이며,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고,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곳은 평강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에게 도로 가르치실 것입니다(마가 4:2)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부터 준비해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게 하실 것입니다(계 21:2).

넷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베소서 2:14~16 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목케하였고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 장 28 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선교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예수 믿으면 반쪽 몸이요, 반쪽 몸은 병신이요 불구가 되는 것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유대인 선교를 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유대인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풍성한 구원으로 기뻐하며 선교의 열매가 가득찼을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폭넓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하나님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 질 것이란 성경의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모든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에 복음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영적인 빛을 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구원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기까지 그들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왕들과 정부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과 위험과 순교의 피와 고통과 핍박을 당해 왔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동물 취급을 받아가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왔고, 우리들에게 보관하여 성공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해 온 결과 오늘날 전 세계가 구원의 감격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복음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예루살렘 선교가 중요합니다. 이런 선교적 중요성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전개될 새 예루살렘 시대를 위하여 선교적 비전(Vision)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하나님앞에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시 135:21).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성경대로 회복되도록 갈망하며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겔 36:28, 사 62:6~7,)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 122:6)



Theme 2

이스라엘 선교와 러시아(구 소련)선교

김영제 목사

선교중앙교회 담임목사

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디아스포라 신학교

소련 공산주의가 1991년에 무너지고 여러 나라로 독립하였다. 이때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다섯 개의 국가가 독립되었다. 나는 1994년에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파송 받아 활동하였다. 그때 소련 각지에 유대인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대인은 백여 민족이 사는 소련 땅에서 가장 뛰어나고 영리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병원을 가더라도 유대인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소련 권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피폐한 공산주의의 잔해 속에서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본국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환대하며 받아주므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나도 유대인들이 쓰던 현 가구를 사서

사용하기도 하였고, 유대인이 살던 아파트를 사기도 하였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긍심이 강하고 뜨거운 형제애(동족애)로 뭉쳐있었다. 몇 대 조상 중에서 한쪽 조상만 유대인인 것이 확인되어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자기 땅으로 받아 주었다. 독일인들도 본국에서 집을 지어 놓고 받아주어 대부분이 돌아갔다. 나는 그런 와중에서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받아들여주는 조국도 없는 우리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져 자주 울었다. 그 땅에 살던 고려인 우리 동포들이 느낀 감정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을 것이다. 유대인과 독일인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참 부럽고 멋있어 보였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 사는 교단 후배 선교사와 연락이 되어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랜트카를 빌려서

공부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까지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녔다. 그때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스라엘이 별로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지명들이 성경과 같은 곳이 많은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소련권에서 돌아온 유대인 디아스포라 때문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중 45%가 구 소련권에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다. 그들이 집 앞이나 공원에 나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러시아말로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각 유적지를 돌아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들이었다.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들은 이미 유적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련 여러 지역에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선교의 한 방법을 보았다.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복음화율은 매우 낮으며 유대인 선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 선교사님들이 십년 넘게 사역해도 유대인을 전도하고 열매를 거두기는 거의 어렵고 대부분이 추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 간 소련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이도 있고, 복음에 대해 열려 있는 이들이 많다. 소련권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오랜 공산주의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적 성격이 매우 약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정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고 영향을 받았다. 또 소련이 열리면서 들어간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이들도 있다. 그때 나는 앞으로 러시아어를 아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구 소련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선교의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본토의 인구의 반이 되는 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불 수 있으리라는 비전을 보았다. 그때 내가 내다보았던 대로 지금은 러시아권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들어가고 있다.

부족한 종이 한국 땅에서 섬기고 있는 디아스포라(외국인)신학교에는 십여 명의 구 소련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유대인들과 친하게 자라며 그들의 문화와 습성을 우리 보다 잘 알고 있고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한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선교비전을 심어주며,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게 하며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케 하리라는 생각을 하며, 이런 기회를 주어서 옛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이스라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Theme 3

“성령님께서는 이 카이로스시대에 가장 큰 기도와 예배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김동례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

Succat David

/예루살렘 24 시 기도의집

성령님께서는 이 카이로스시대에 가장 큰 기도와 예배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7)
모든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에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기도는 다가올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열방을 통치하는 방법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중보)하심이니라” (히 7:25)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시 2:8-9)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성령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도와 예배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이 이 땅의 칭송을 받을 때까지 24 시간 7 일 계속될 종말의 기도사역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밤과 낮으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위에 파수 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기에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7)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예루살렘 24/7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수캇다비드)은 이 밀씀의 모토를 삼아 열방의 중보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에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동쪽은 열방기도의 집이 있고, 서쪽은 City of David 의 집이 있고, 남쪽에 수캇 할렐이라는 기도의 집이 있고, 북쪽은 우리 수캇 다비드 기도의 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셀 인트레이트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야드시모나쪽 기도의 집도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수캇다비드는 히브리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히브리대 안에서 에挫하임 교회 (생명의나무 교회)이 생기기까지 많은 중보와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대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음세대를 이어갈 주역들이 예수아의 복음을 듣고 주님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들이 일어나길 우리는 소망해 보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게스트 사역도 하고 있는데 열방에서 중보자들이 오며 이들을 섬기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두 곳의 궁溽사역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지역)을 또한 허락하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때 기도운동을 이끌어가는 힘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열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기 위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상 16:29)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협통하리로다”
(시 122:6)

1. 이스라엘 땅에 은밀히 들어와 테러, 폭탄 전쟁을 일으키는 하마스 테러집단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 집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더 뭉치고 보호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 믿는 유대인 군인들이 더 믿음으로 진리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군사로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선전이 진리 말씀으로 파하여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복음이 아랍지역에 전해져 그들을 이슬람의 거짓으로부터 구원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메시아닉교회 (믿는 유대인)들이 더 예배가 부흥되고 회복되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믿는 유대인 교회들이 정통 유대인 (극우파)들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조종하는 종교의 영들이 떠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이스라엘 땅에(변방지역포함) 더 많은 기도의 집과 예배처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대학 캠퍼스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임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9.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예배자, 기도자, 섬기는 자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0. 중동 7 개국에도 속히 기도의 집이 세워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1. 구제 사역과 긍휼 사역에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이 더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2.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땅가운데 온전히 풀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Interview – 러시아 로스톱 김우섭 선교사

본회 후원선교사이신 김우섭 목사님께서 현지 8 명의 신학생들과 한국에 방문하시게 되어 2010년 2월 15일 김우섭 목사님 및 동역하시는 김영곤 목사님과 러시아 현지 신학생 두 부부와 선교지에 대해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글/편집부,)



Universal Care(이하 UC) : 먼저 목사님의 사역지와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섭 목사님 (이하 김우섭) :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 남부 지역의 **로스톱 나다누**라는 지역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러시아를 크게 몇 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남부 지역의 수도입니다.

인구는 약 120만 정도, 주변에 있는 중요한 지역들을 한 400-500km 떨어진 지역의 아프카스 지역, 흔히 러시아에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체첸, 에네스타, 인지에지아 이런 지역들이 포진해 있고 그 지역은 주로 무슬림권 지역이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스타틴트, 몰다가드 지역이 있고 그런 남부지역의 중심도시 **로스톱 나다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여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은 신학교 사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학교 사역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현재 개혁 개방 이후에 20년이 못 되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숫자적으로나 이런 개신교 전체 부흥 면에서 봤을 때, 전에 개혁 개방 보다는 많아졌지만 지도자들의 목회를 할 수 있는 영적, 신학적 자질을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교 사역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러시아 개신교 지도자 목사님들이 좀 더 교회를 바르고 성경적이고 또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신학자 훈련이 필요하다 싶어서 신학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자 사역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가 개척된 지는



2년이 채 안 돼서 교회는 아주 약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한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UC : 네. 그러면, 지금 사역하고 계신 곳에서 언제부터 사역을 하셨는지요?

김우섭 : 제가 실은 **로스톱 나다누**라는 지역을 잘 들어보질 못했어요. 김영곤 목사님에 의해서 소개 받았고 2007년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1년 정도 준비하고 2008년도 10월 달부터 가족들이 들어가서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만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UC : 그럼, 그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나요?

김우섭 : **카자흐스탄 ғылз오르다**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곳은 부천 의성교회에서 98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약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UC : 음...그럼 왜 그 곳에서 사역을 그만두시게 됐죠?

김우섭 : 부천 의성교회에서 98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카자흐스탄 ғылз오르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약 한 4년 정도는 원래 그 곳에 교회에 개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적응과 함께 또 언어 훈련, 정착, 이런 일에 주로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ғылз오르다** 지역에서 계속해서 교회 사역, 또 지도자 훈련, 또 인근 지역의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 사역 이렇게.....

제가 근데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그 쪽 지역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카자흐스탄 ғылз오르다** 지역은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카자스탄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카자스탄인들은 특히 시콜로 갈수록 더 모슬렘이에요.

또 보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끄줄오르다 도시 인근 지역에 개척하면서 그 쪽에 있는 지역 원로들에 의해서 자꾸 교회 개척에 반대를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해서 경찰에서 자꾸 주목의 대상으로 지목을 했고, 이로 인해서 부득이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돼서 이 일 때문에 비자를 발급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나오게 됐죠.

UC : 그러니까, 8년 동안 카자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비자가 거부되면서 추방 당하신거죠?

김우섭 : 실은 추방이라고 봐야죠.....

UC : 8년동안 사역하셨던 카자스탄을 떠나 다시 한국을 거쳐 지금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가족들의 어려움들은?

김우섭 : 가족들의 어려움보다도 실은 러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것이, 비자 발급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비자 발급이 안 되면 선교에 있어서 정착이 안 되는 거니까 매년마다 비자발급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것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UC : 자제분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학교를 다니고 적응하는 것등에서?

김우섭 : 큰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도 러시아 학교를 다녔고 또 러시아로 옮기고 나서 러시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단지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모든면에서 약간 낯설게 보는,,,^^. 그런 지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한 기억은 있는데,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UC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셨죠?

김우섭 : 그 동안 우리 김영곤 선교사님에 의해서 모스크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로스톱 나다누 지역에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06년부터 시작된 신학교 그 사역에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반 정도의 과정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1회 로스톱 신학교 졸업식을,,,

UC : 학교명이 로스톱 신학교인가요?

김우섭 : 예, 지금 우리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로스톱 고려 신학교 분교' 이렇게 실은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음,,그건 뭐 러시아 현지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번 졸업식 때문에 8 명의 졸업생들과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UC : 음,,,그러면 사역하고 계신 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것은 김영곤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려볼께요.

UC : 김영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본인 소개 간략히 해 주시고요. 또 모스크바 로스톱에 있는 신학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곤 목사님(이하 김영곤) : 저는 1991년 10월 달에 러시아 연해주 나홋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2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2003년도에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 이름은 장막교회입니다. 장막교회를 개척하고 또 함께 신학교 사역을 시작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6년 모스크바에서 신학 사역을 하면서 지방으로도 가끔 세미나를 다니는데, 2006년도에 로스톱 나다누라고 하는 지역에 세미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달 이렇게 내려와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년 가을부터 계속 매달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17명이 시작했는데 점점 30명,



40명, 50명....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뭐 모스크바에서 로스톱까지 1,000km! 기차로는 24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 40분 거리라서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제가 고려신학교에 교수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모스크바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상당히 부담이 있어 가지고 "선교사 한 분을 이렇게 보내

주시면 좋겠다.” 마침 김우섭 목사님께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지금 3년 반,
이렇게 신학 수업을 하고 이번에 8명이
졸업하고 오게 됐습니다.

UC : 그럼 지금 현재는 학교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김영곤 : 지금 정확하게 50명은,,,50명
정도? 이게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없는 게
들쑥날쑥 하는 그 숫자가 좀
있어서,,,많을 때는 70명까지 갔었고,
평균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 숫자는 40명-
50명 정도. 그래서 3년 과정으로.

그리고 목사반이 있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수업을 받는 과정이 있고
평신도 리더 그룹도 있고,,,이렇게
있습니다.

UC : 기존 목회자들을 위한 그룹, 또
신학대학원, 평신도 교육,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네요. 그러면 3년
과정이 끝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건가요?

김영곤 목사님: 지금은 이번에는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신학 공부를 늦게 해
가지고 마쳤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이미
받은 상태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대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본인들이 희망할 때, 목사
안수를 받겠다 할 때는 저희 교단(고려;

편집자 주)에서 자격 심사를 해서 안수를
주는 거죠.

UC : 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저 러시아에서 개신교의 교세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선교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김영곤 : 러시아 개신교는,,,,,러시아에서
개신교는 지금 1%도 안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종교로써, 문화 종교로써의 영향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개신교가 참 밭을
붙이기가 쉽지 아니한 지역이지요.
그런데, 지금 개방되면서 한국 선교사들과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많은 활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봐야죠.

(다시 김우섭 목사님과)

UC : 지금 이제 사역지이신 로스톱
나다누의 영적인 상태가 궁금한데요,
가장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모슬렘인지 아님 정치적인 것들인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가장 복음에 방해가
되는지, 어느 정도로 공격적으로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김우섭 : 음,,,가장 공격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보다는 총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지금 와서
교회 상황을 봤을 때, 전에 개혁, 개방

이후에 러시아에서 갑자기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무너지면서 정신적인 공백기, 영적인 공백기 이런 상태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면서 교회로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 현재 약 거의 20 년가량 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겪었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교회보다는 또 더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교회나오는 비율이 아주 현저하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 이런 한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그 방해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자기 정교회 외에는 특히,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이단.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20 년이란 세월이 훌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대해서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봤을 때, 그런 러시아 정교회 방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러시아 정교회. 즉 러시아는 정교회 나라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에 많이 경계하고 또 확장되지 못하도록 더 법을 제정해서

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로스톱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상 러시아 현지어로 만지뜨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마피아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스톱' 하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또 그런 마피아들이 많은 도시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그런 마피아들로부터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보았고, 그런 또 영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UC : 지난 해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었고 러시아도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김우섭 :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깐 경제 침체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는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러시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축 경기가 완전히 all-stop 된 상태이고, 많은 공장이나 기업들이 감원, 감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그런 것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봐야죠.

UC : 러시아 로스톱 나다누에서 선교사님의 비전과 기도제목이 무엇인지요?

김우섭 : 네. 비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가장 큰 비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직접 교회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하는 어떤 그런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선교사들은 언어와 또 문화에 있어서 현지인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현지인들이 사역자로 서고 또 그들이 사역을 해 나가야지, 그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역중의 한 가지. '신학교 사역' 그래서 현재 목회자들 대상으로 더 신학적으로 또 더 영적으로 더 확실한 목회자로 세워서 정말 자기 섬기는 교회를 더 잘 섬겨서 그들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또 그 것과 함께 아울러서 현재 목회를, 목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또 잘 가르쳐서 목사로 세워서 또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 나가도록.

그게 가장 큰 사역 비전 중의 한 가지이고, 또 아울러서 선교사가 가서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든든한 교회로 자리잡기를

그렇게 원하는 두 가지를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김우섭 : 기도제목은 일단 현재 사역 범위 안에서 가장 먼저 신학생들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런 좋은 목사들이 배출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사역들을 많이 해 나가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선교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교 인가를 받은 곳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할 때는 신학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은 신학교라는 명칭을 거기 현지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라는 명칭을 갖고 하면 당장 법적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신학교를 계속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지혜롭게 그렇게 기도자 훈련과 목회자 훈련 사역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고.....

건물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공공 건물은 전혀 교회나 신학교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건물들을 세를 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러시아도 물가가 거의 한국만큼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사역과 또 신학교 사역을 아울러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해서 기도제목을 갖고 있고, 또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길 바랍니다.

UC : 교회 이름은 뭐죠?

김우섭 : "로스톱 중심교회",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 건강과 자녀들 학업 잘 감당해서 그 곳에서 대학도 마치고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UC : 원장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universal care member 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섭 : 이런 선교의 mind 를 갖고 선교사들과 직접 관계를 갖고 후원하면서

하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정진호 집사님이 일찍부터 선교에 뜻을 갖고 선교사와 이렇게 접촉하면서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mind 를 더 넓혀 가면서 앞으로 더 universal care 가 확장돼서 더 많은 일들 감당할 줄 믿고 또 이 일에 같이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가는 우리 universal care 모든 동역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같이 손 잡고 이렇게 해 나갈 때, 더 많은 좋은 이들이 이루어 질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2 부 – 러시아 신학생들과 함께

(통역 : 김우섭 선교사)



UC : 소개를 좀 한 분, 한 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우섭 : 소개를...음...우리 여기 목사님은 '후루바녹' 목사님, 여기는 '블라리미르' 목사님, 그리고 여기는 후루바녹 목사님의 사모님에 '올가', 그 다음에 여기는 블라리미르 목사님의 부인 '일리예나'입니다.

UC : 그러면 먼저 후루바녹 목사님께 여쭙겠는데요. 참 귀한 분이신데.....어떤 계기로 신학교에 지원하게 되시고 과정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후루바녹 목사님(김우섭 목사님 통역; 이하생략): 1996년도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 동안 신학적인 걸 너무 많이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알고,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

UC : 그럼 지금 사역하고 계신 곳은 어디시죠? 목회를 하고 계신가요?..

후루바녹 목사님(김우섭 목사님 통역): 로스톱 나다누에 있는 '그리스도 사랑교회'입니다..

김우섭: 이 분은 특별히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분은 '아제르바이젠' 사람입니다. 거기는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집을 못 갔어요.

UC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셨는지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루바녹 : 좋은 질문이에요, 자주 받는 질문인데,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나 것 때문에 더 이상 거절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믿게 됐냐면 아내, 올가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밥티스트** 그러니까 침례교의 전도사였대요. 그러니까 먼저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사모님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올가 사모님만 믿었는데, 저는 모슬ле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어요.

제 아내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믿는 자를 핍박하려 다니는 사울과 같은 자였지요. 오랜 월동안 신앙 때문에 아내를 많이 괴롭혔지요

UC :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떤 그런 영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후루바녹 :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자기 남편에 순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 아내 올가 사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순종하는 거예요. 이 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UC : 할렐루야!!^^

다같이 :ㅎ ㅎ ㅎ ^^

UC : 그럼 이번엔 블라디미르 목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오게 되셨는지요?

블라디미르 목사님(김우섭 목사님 통역; 이하 블라디미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원하여 다니게 되었어요

UC : 네, 지금 그럼 사역하고 계신 교회는?

블라디미르 : '열방교회' 이고요 저도 제 아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 딸이 하나있는데, 그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특히 얼굴이 빨갛게 되는 병으로 의사의 말로는 얼마 못 산다고 했어요.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서 각 장기가 차례로 나빠져 심장이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간이 못 쓰게 되고 그런 병이래요. 그 당시 의사의 말로는 앞으로 1년을 못산다고 했어요.

블라디미르 목사님 사모님

'**일리예나**' : 그 때는 신앙이 없던 때인데, 그 때 절망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다면 얘를 좀 그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블라디미르 : 그러니까 너무 딸이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들어가고 보니까 예레미아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그 모든 게 다 나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

UC : 혹시 그 병이 루프스라는 병인가요? 얼굴이 빨개지는, 일종의 자가 면역질환으로 얼굴이 나비 모양으로 빨갛게 되어지는 병이 있는데, 그것과 매우 비슷해 보이네요..

블라디미르: (맞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리예나 :(빨간 리본을 가리키며) 네 맞는 거 같아요.

김우섭 :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신학교에서 찬양 인도해요 목사님의 딸이.

UC :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각자 비전이나 기도제목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후루바녹 : 지금 저희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토요일 날 장소를 얻어서 토요일 날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평일날은 더 이상 모일 장소가 없는 거죠. 주일 날 예배드릴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일 학교는 모일 수 없으니까 더 심각하죠. 이것이 현재의 러시아의 상황이에요. 러시아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에요. 한 건물에서 몇 개 교회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블라디미르 : 저희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UC : 저희도 모였을 때 저희 멤버들하고 같이 그 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I - 몽골 황필남선교사

몽골소식

할렐루야! 선교의 지상 명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1. 몽골 상황

작년에 몽골 정부는 그동안 묵과했던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재하고 팝박하는 어려운 한 해 였습니다. 수십명의 선교사들이 목적외 비자를 받아 활동한다는 이유로 팝박하고 추방을 시켰습니다. 저에게도 정부에서 조사를 나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때를 맞추어 종교비자로 전환하여 어려움을 면했습니다. 기도로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겨울은 2010년 1,2월에만 2,000,000 마리의 가축이 추위와 폭설로 먹을 풀이 없어 동사하였습니다.



올 겨울은 냉시 추워 나이 많은 분들은 평생 이런 추위를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루에 평균 38 대, 1년에 13,870 대의 자동차가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는 얼어 붙었으나 그래도 노동력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계속 외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지난 19년간의 선교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몽골내 교회 숫자는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500개의 몽골교회가 그리고 60,000명(2%)의 신자들을 가지는 몽골 기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2. 최근 사역 소식

저는 기도와 염려 덕분에 지난해는

10 월까지 77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1 월 독엘 베를린 교회에서 7 명, 12 월에는 와싱톤 몽골교회에서 흑인 디온형제와 몽골인 5 명등 총 6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몽골에 돌아와 1 월 24 일 멍힝우능 교회에서 8 명에게 세례를 주는등 총 96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멍힝우능 세례자중 2 명은 아내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은 초고와 졸라도 세례를 받았는데 초고는 술 중독으로 가정이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직장에서도 죽겨 날 상황일 때 예수를 영접하자 말자 삶이 온전히 변화 받은 형제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제출한 서류를 취소하고 지금은 그의 두아들과 아내 장모까지 교회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3.멍힝우능교회소식

기쁜고 감사한 소식은 지난 겨울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매주 6~12 명의 새신자가 계속 나와서 선교사가 출타하고 없을 때에도 교회는 솟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장년부 걸인예배에 평균 280 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320-350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 되었습니다

8 개의 구역 모임은 아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한 구역이 몇개 늘어 나면서 13 개 구역으로 활성화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몰려오는 새신자들을 양육 하기위해 더많은 지역에 구역이 세워져야하는 상황입니다.

3/12~14(2 박 3 일) 동안 겨울수련회를 못했기 때문에 춘계수련회를 합니다.

4. 와싱톤 교회 소식

유럽교회 사역을 마치고 와싱тон에 도착한 날 급성 폐렴으로 생명이 위독했던 바이라형제는 온 성도들의 금식기도와 날마다 병원을 심방하여 기도했는데 무사히 생명은 건져 퇴원했고, 말기 암으로 투병중인 디온형제는 병원치료와 기도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문 동안 계속 만나 기도와 양육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6 년 동안 사역했던 아내가 떠난 자리에 생겨난 와싱تون 몽골교회의 내적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문제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2010 년 새로운 교회조직과 사역자들을 임명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와싱تون 교회는 지난 6 년 5 개월 동안 총 64 명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5. 독일 베를린 몽골 교회 소식

지난해 11 월달 방문하여 7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단에 연류 되었던 베를린 교회 중심 성도 싸이흐나를 구출했고, 아직 남은 몇몇 초신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5 일간 10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구정에 잠시 몽골에 온 싸이흐나는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다져주고 불신자인 언니를 예수믿게 하려고 우리부부에게 소개해 주고 영적으로 잘 양육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21 세기는 외국에 세워진 몽골교회들을 통해 몽골 내 불신가족들을 전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싸이흐나가 독일로 떠나기 이틀 전 우리집에 독일에서 돌아온 자매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국식 설 음식을 대접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6.지방교회 소식들

몽골내 지방에 주로 산재해 있는 50 개 교회는 대부분 평안합니다. 강추위로 고비지방의 한 성도는 100 마리중 70 마리가 죽고 30 마리가 남는등 몽골의 겨울 가뭄과 폭설은 몽골에 있는 13 백만 마리의 가축중 2 백만 마리를 몰사 시켰습니다. 현재 몽골 지방이 크게 어렵고, 지방 교회들도 강추위 속에 어렵습니다. 지방 교회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초이르와 준하라 지역에 담장집 두 채를 사서 예배당으로 드렸습니다. 교회가 없는 9 개군 지역중 4 개 군교회에 새로운 교회 개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순회사역과 신학교사역

2/24~2/27 일 수도에서 380km 떨어진 에르덴드 지역에 열차로 12 시간 가서 지도자세미나를 인도하였고 함께 동행한 아내와 에마자매는 와싱톤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심방하여 전도하였고 가까운 교회들로 인도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3/8~3/13 일까지는 수도에서 600km 떨어진 으믄고비에 지방분교 장로신학교에서 아침 9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강의와 으믄고비 구원의교회에서 수요예배와 매일 새벽예배를 인도합니다. 현재 장로교신학교에서는 몽골초기 선교역사와 사사기, 선교학개론을 강의중에 있습니다.

저의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www.pnhwang.com

2010년 3월

황필남 김말례 선교사드림

선교지에서 온 편지 II. – 남아공 배성호선교사

샬롬! 평안하세요?

이곳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며 잘 지내고 있지요.

아이들은 개학을 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는 지난 3주 연속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방문하여 정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은 그 지역에 ANC(집권당) 정당 대표와 카운셀러(우리로 이야기 하면 구청장급) 와 주민대표 그리고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의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병아리 사역인데 병아리 사역부터 시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새로운 개척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시골지역인데 약 2000 가정이 거주 하고 있으면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1~7 학년), 고등학교 (8~12 학년) 그리고 유치원이 약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며 청소년들은 오렌지를 수확하는 시기(8~10 월)를



제외하면 실업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Ado라고 부르는데 약 10Km 떨어진 곳에 코끼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국립공원인데 코끼리가 약 650 마리가 서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취업하여 있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 있을 미팅이 기대가 되며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녀 오는 데로 사진을 올리고 글도 달아 놓겠습니다.

함께 동행 할 사람은 영은이, 진영이(유학생), 재환이(유학생) 그리고 시흘레 라고 하는 학생인데 현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통역을 맡아 수고하는 9학년 학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또 다른 계획은 1월 28일 피이를 떠나 29일 프레토리아에서 있을 대신교단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신교단 총회의 참여는 남아공 및 짐바브웨 협력 선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3 기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선교사역의 1기는 4년이기에 8년이 지난 현시점에 2기를 마쳤 가고 있고 4월부터 3기로 접어들게 됨)
30일, 31일은 그 지역의 시골들을 방문하여 지역 정탐을 할 예정이며 2월 1일 남아공을 출발하여 차량으로 짐바브웨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짐브웨에 도착하면 약 2주 동안 머물 예정이며 15일 남아공으로 돌아와 프레토리아에서 1박을 하고 16일 다시 피이로 돌아 오는 계획입니다.

그 후 계획을 잡아서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지의 땅을 향한 끝없는 선교의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교의 여정을 떠나면서 Universel Care 에 부탁 할 것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후원자들을 모집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아리 사역은 1 구좌에 10 만원인데 이 금액이면 병아리를 약 50 마리에서 70 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된 병아리는 한 가정에 지원이 되며 온 가족이 5~6 주를 정성껏 돌보면 장닭이 되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원가를 제외한 수익은 각 가정이 생활비로 쓰게 되면 원금은 다시 교회에 현금을 드려 또 다른 가정을 돋고 또 순수익에서 십일조를 드려 받은 은혜를 다시 이웃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후원자들은 몇 구좌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정해진 금액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할 때면 이 모금을 위하여 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개척 예정지인 ADO 의 약 2000 가정(한 가정에 4~5 명)을 육의 양식으로 살리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며 영의 양식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사역은 짐바브웨에서도 전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며 육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 운동이 힘 있게 전개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평안한 주말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1월 22일

남아공에서 배성호 선교사 배상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
김우섭선교사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1.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신학교 학생들의 열심있는 배움과, 교수님들의 오가는 교통편을 위해.
3. 신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학생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4. 졸업생들이 계속하여 우리와 연계되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5. 자수 유치원을 뜻기려고 합니다.
이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6. 교회의 부흥과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7.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혈압)

1. 명칭우승교회의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임하며 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2. 계속되는 순회사역과 신학교 강의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잘 감당하도록
3. 지방 교회들이 성장 자립하며 50 여 지방 교회와 외국에 세워진 몽골교회와의 연합 사역을 위해 (와싱톤 몽골 교회와 독일 몽골교회가 현재 지방교회를 후원하고있음)
4. 유럽에 세워진 몽골교회들이 잘 정착하며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5. 미국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미주내 몽골사역과 유럽사역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1. 남아공의 예수생명교회의(Life of Jesus Church) 120 여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2. 2 기 사역지의 개척을 위해서
2. 짐바브웨의 정탐과 붙여 주실 협력자를 위해서,
3. 아내와 영은, 지은, 하은이를 위해서.

6. 협력교회인 샬롬교회를 신학교 옆으로 이사시켜 매일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7. 교수님들과 후원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



||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공석중인 이사장직에 예비하신 좋은 분 허락해 주옵소서.
2.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후원교회와 이사진을 주옵소서
3. 좋은 학생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교수진이 든든하게 하옵소서.
4. 학생들의 건강과 직장, 재정문제, 두고 온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5. 졸업한 학생들을 후원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1. 프놈펜(수도)과 주변 도시에 퍼지는 십자가 복음이 캄보디아의 지방 곳곳에 소수 민족에게까지 전파되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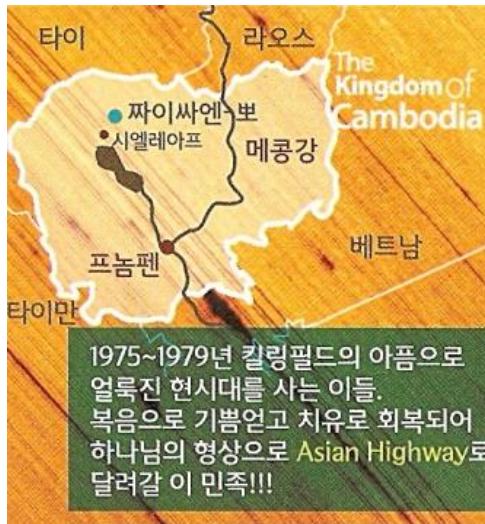
2. 캄보디아 땅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린도의 이름으로 파하여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3.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되시고, 감당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도록

4.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이신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5. 3 월에 있을 중국 찬양사역자 학교 사역을 위해

결정하여 기도와 작은 물질로 동역하기로 하였습니다.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2010 봄호 출간

2010년도 첫 번째 "Universal Care" 선교회지가 출간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호에는 후원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로 책이 만들어 졌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 동역자에게 전 하실 목적으로 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집부로 연락 바랍니다.

2.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

Universal Care에서는 2010년도 1월부터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님을 후원 선교사로

3. 몽골 장로회 연합 신학교 신학생 장학금 전달

2010년 1학기부터 신학생 1인을 후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본회 상임고문이신 황필남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에르덴 호익' 전도사님이 선정되어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4. 찬양인도자-홍성훈 목사

송원식 목사님의 뒤를 이어 홍성훈목사님께서 이번 집회에서부터 찬양 사역자로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찬양팀으로 혼신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원바랍니다.

5. 철원 통일한국 아웃리치 참가

2010년 2월 4~6일 2박 3일간 있었던 월드와이드교회 철원 통일 한국 아웃리치에 2월 5일(금) Universal Care 치과팀이 참여하여 지역 주민 및 성도들을 치과 진료로 섬기고 돌아 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6. 2010 몽골 아웃리치

2010년 5월 1~5일 4박 5일간 몽골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Universal Care 진료팀뿐 아니라 월드 와이드
교회 몽골 선교회와 함께 선교지 교회개척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Universal Care 제 4 차 정기모임

이스라엘의 회복과 24 시 기도운동

강사 : 다비드리 선교사

예루살렘 24 시 기도의 집

Succat David 대표

일시 : 2010년 3월 16일(화) 오후 7시 30분

8.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 일시귀국

러시아 로스톱 김우섭 선교사님이 로스톱
신학교 졸업식을 위해 지난 2월초 신학생들과
입국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 Universal Care 와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기도제목

1.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돋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4.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하소서.
5. 2010년 사역 계획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제4차 Universal Care 정기모임

찬양인도 : 홍 성 훈 목사

강 사 - **다비드리** 선교사

예루살렘 24 시 기도의 집
'Succat David' 대표

이스라엘 회복의 필요성

(롬 11 : 25 ~ 28)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 122 : 6)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송찬송 선교사 (캄보디아)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에르덴 호익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

gish.com